

## 藏六堂의 六歌와 玩世不恭

尹榮玉\*

### 〈국문초록〉

장육당은 이별의 호이다. 그는 再思堂 이원의 아우다. 이원은 성종 20년에 급제하여 김종직의 문인으로 몰려 갑자사화에 죽임을 당하였다.

이별은 형 원이 나주로 귀양감에 교외에서 눈물로 이별하였다. 이로부터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황해도의 평산에 집을 짓고, 그 집의 이름을 장육당이라 하였다. 늘 소를 타고 술을 싣고 향사의 기로들을 이끌고 낚시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냥도 하였다.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해가 저물어도 돌아가기를 잊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취하고, 취하면 노래하고, 혹은 눈물 흘리며 울어 슬퍼하였다.

이별이 당호를 장육당이라 함은 『잡아함경』의 “거북이 있었는데 野干이란 짐승에게 잡혀었다. 머리와 꼬리 그리고 네 발을 껍질 속에 감추고 내놓지 않으니 야간이 성을 내다가 가 버렸다.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거북이 머리와 꼬리 그리고 네 발을 감추듯이 스스로 六根을 감추고 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에서 취한 것이라.

장육당은 재사당의 아우요 사육신인 박팽년의 외손자이다. 갑자사화에 형이 화를 입음에 그의 형제들도 연좌되었다. 연산군이 폐위된 뒤에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장육당의 〈육가〉라는 것이 세상에 전파되었다. 퇴계는 이 이별을 평하여 “매우 오만하게도 세상을 버리고 자취를 숨겼다”고 하였다.

퇴계는 노래 부르기(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말로 가사를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래하는 우리의 가곡이란 대체로 그 말이 음오패하기 때문에 말할 것이 못되었다. 그가 말한 우리 말의 노래란 〈쌍화점〉과 같은 비문인들의 가사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문인들이 지은 〈한림별곡〉을 거론하게 되었는데, 그것마저 궁호방탕하고 설만회압하여 군자들이 마땅히 숭상할 바가 못된다고 거부하였다.

\* 영남대

이 때 눈에 띈 것이 이별의 〈육가〉였다. 이별도 문인이었기에 한림들의 〈한림별곡〉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육가〉가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의 기준으로 는 형식과 내용이 다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육가〉가 더 낫기는 하지만, 아깝게도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한 內實이 적다는 흠결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이 〈육가〉를 略倣하여 〈도산육곡〉 두 편을 지었다. 그러고도 이것이 闕端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걱정하였다.

퇴계가 말한 '은유돈후'는 詩敎의 理想이다. 이 시교는 이미 漢代의 『禮』에서 표방되어 '溫柔敦厚 詩敎也'라 못박고, 풀어서 "溫 爲顏色溫潤 柔 爲情性和柔. 詩依違諷諫 不指切事情 故云溫柔敦厚是詩敎也"라 하였다.

〈육가〉에는 이 시교의 외면적인 따스함과 내면적인 情과 性的 부드러움이 적고, 그 반대로 풍간하여 指切事情함이 강하였던 모양이다. 풍간하여 事情을 매물차게 지적하여 논평하였음을 퇴계는 '玩世不恭'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장육당은 淸과 濁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의 분별도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玩弄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塵寰에서 超然했던 것이다. 泉石膏肓으로 太平聖代에 四時佳興을 한가지로 하는 퇴계와는 그래서 다르다. 퇴계는 淳風과 여진 人性을 긍정하였기에 만족하고, '古人の 녀던 길'을 끊임없이 行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玩世不恭'과 '溫柔敦厚'가 판별되어진다.

장육당이 '玩世不恭'했다면, 그것은 自取한 것이요, 퇴계의 '溫柔敦厚'함도 스스로 취한 태도이다. 이 自取함에 是非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장육당이 너무 우뚝하기에 퇴계는 "爲太傲然 遺世放跡"이라 비판하였다.

**핵심어** : 玩世不恭, 溫柔敦厚, 이별, 장육당의 〈육가〉, 이황의 〈도산십이곡〉

## 1.

장육당 李鼈의 〈육가〉에 대한 논의는 崔載南교수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육가〉는 세상에 널리 전해졌던 것으로 일찍이 退溪의 귀에도 들어 "玩世不恭하여 溫柔敦厚한 內實이 적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장육당의 종손자 李光胤(1564~?)이 이 〈육가〉를 漢詩체로 번역할 때는 이미 2수

가 없어졌다. 노래불리지 않으니 잊혀졌던 것이다. 기억된 4수만 번역되어 <장육당육가>로 남게 되었다. 이 뒤에 許穆(1595~1682)이 <六歌識>를 쓰기는 하였으나 작품의 실체는 보여주지 않았다. 작품의 실체가 없으니, 더욱 궁금하기만 할 뿐, 퇴계가 비평한 내용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분명히 밝히기도 어렵다.

그래서 장육당 이별에 관계되는 기록들을 다시 읽고, 퇴계의 “玩世不恭”의 의미를 살펴, <장육당육가>를 분석하여 그 뜻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 2.

장육당의 아버지 李公麟의 묘갈명을 申用漑(1463~1519)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썼다. 번역해 본 것이다.

공의 이름은 公麟으로 慶州의 이름난 성씨이다. 그의 6세조 齊賢은 호가 益齋인데, 신분이 높고 세상에 알려졌다. 고려조정의 벼슬이 侍中이었으며, 文章과 德業이 일대에 높았다. 이 뒤로 고관들이 이어져 세상에 이름난 가문이 되었다.

관찰사 李尹仁이 만호 洪仲良의 딸에게 장가들어 공을 낳았다. 홍중량의 가문도 세상에서 알아 주었다.

공은 성품이 맑고 아름다워, 아름다운 바탕에 원대한 기력을 가졌다. 그러나 젊어서 장인 朴彭年의 죄에 연좌되어 벼슬길에 오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해 비로소 무관직에 이름이 다시 천거되어 通禮院의 引儀 겸 漢城府의 參軍이 되었다. 咸悅과 昌平의 현령으로 나가 선정하여, 아전들은 두려워했으나 백성들은 편안해 하였다.

여덟 아들 龜 龜 龜 龜 龜 鯁 鯁을 두었는데, 모두가 才子들이었다. 龜는 진사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龜 龜과 더불어 문과에 급제하였다. 龜는 佐郎이 되었고, 龜는 河川郡守가 되었으며, 龜는 禮曹佐郎이 되었다. 龜 龜 龜도 사마

시에 합격하였고, 鯁과 鯤도 또한 학업을 이루었다.

齋이 戊午獄에 걸려 귀양갔다가 甲子年의 학정으로 죄를 더하게 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허물 없이 이에 연좌되어 아버지와 형제 모두가 멀리 유배되었다. 공은 이로 말미암아 昌平에서 파직되어 海南에 귀양가 3년을 지내고 聖主(중종)의 등극을 맞이했다.

왕위에 오른 중종은 원통히 죽은 자를 슬퍼하여 벼슬을 추증하고, 귀양살이에서 풀려난 사람들에게는 복직을 시켰다.

공은 여러번 화를 겪고 나이 많고 또 늙어, 조정에 벼슬하고자 아니하여 淸州의 집으로 물러나 한가히 지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여러 아들이 의논하여 비를 세우고자 공의 덕과 계과 자손들을 밝혀 用漑에게 주면서 銘을 지으라 하였다. 용개는 귀 원과 마음을 허락하고 형제 되기를 약속하여 공의 당하에서 절하고 가장 믿고 지낸지가 오래되어 명으로 사실을 기록함을 감히 사양할 수 없었다. 명하여 기록한다.

齋於己而豐於後  
有慶蘭玉之藪  
門之大歿而不亡宅  
于斯永保吉康

이 묘갈명을 지은 신용개는 申叔舟의 손자로서 이공린의 아들들과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호의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서 그렇게 편벽되게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연산조를 虐政으로 중종을 聖主로 나타내긴 하였으나 사실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 비쳐진 것은 고려의 相臣 이제현을 언급하여 慶州 李氏가 명문임을 드러내고, 한 임금의 위해 목숨을 바친 死六臣 朴彭年의 사위요 외손들임을 밝혀 節義를 숭상하는 집안임을 은연중에 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명문가의 이공린에게는 아들이 여덟이나 있었다. 이들은 모두 才子들이었다.

鄭希良(1469~?)은 그의 문집 『虛庵遺集』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 놓았다.

李龜은 자가 浪翁이고 경주 이씨이다. 호는 再思堂이요 익재의 후손이고 박팽년의 외손자이다. 己酉年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랑이었다. 무오사화에 매를 맞고 羅州에 귀양갔다. 갑자사화에 화를 당했다. 중종 초년에 도승지로 추증되었다.

형제가 여덟인데, 사람들은 後漢 荀叔의 여덟 아들에 비했다. 그리고 공을 지목하여 구숙의 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慈明 荀爽이라 하였다.

아버지 이공린이 박팽년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결혼하던 날 꿈에 노옹 여덟이 찾아와 절하고 청하기를 “우리들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명에서 살려 주신다면 후하게 보답하겠습니다.” 하여, 놀라 일어나 물었더니, 요리하는 사람이 자라 여덟 마리로 국을 끓이려고 하여, 즉시 강에 풀어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한 마리가 옆길로 가기에 어린 종놈이 삼을 가지고 잡으려 하다가 잘못하여 그 목을 잘라 죽게 하였다. 그날 밤에 또 꿈을 꾸었는데, 일곱 사람이 와서 사례하였다. 그 뒤에 여덟 아들을 낳았는데, 龜 鼈 鼈 鼈 龜 鯤 鱧 龍이라 이름하여 그 상서로움을 나타내었다. 모두가 才名이 있었다.

浪翁의 文章과 行義는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갑자사화에 죽었으니 그 징험이 이와 같았다.

지금까지 이씨들은 자라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공의 아우 별은 교외에서 울며 공과 헤어지고는 다시는 과거시험에 나아가지 않고, 늘 소를 타고 술을 싣고 향사의 耆老들을 데리고 물고기를 낚거나 사냥을 하였다. 술을 마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울어 슬퍼하였다. 일찍이 시를 지어,

我欲殺鳴鷄	恐有舜之聖
雖欲不殺之	亦有跖之橫
風雨鳴不已	舜跖同一聽
善惡各孜孜	不鳴非鷄性

우는 닭 죽이려니 순임금의 성스러움 있음이 두렵고

죽이지 않으려니 도척의 횡포 있음이 두렵구나.

비바람에도 울음 그치지 않으니 순임금과 도척이 같이 듣겠구나.

善人和 惡人이 제가꿈 애쓰니 울지 않으면 닭이 아니니라.

익재의 6세손이요 死六臣 박팽년의 사위인 이공린은 결혼하던 날 밤 꿈의 瑞兆로 여덟 아들을 얻었는데, 이들은 후한때 荀叔의 여덟 아들처

럼 다 훌륭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원이 더욱 뛰어나서 慈明 苟爽과 비견된다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文章과 行義가 있었지만 갑자사화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 말속에 애석해하는 마음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원의 아우로 특히 별에 대해 그 삶을 말해 주고 있다. 별은 귀양가는 형 원을 교외에서 눈물로 이별하고, 黃海道 平山으로 숨어들어 울음으로 슬퍼하다가 병으로 죽고 마는데, 그 사이에 지었다는 시가 〈放言〉이란 제명으로 신용개에 의해 『續東文選』에도 실려 있다.

許穆(1595~1682)은 이원의 묘갈명에 다음과 같이 썼다.

공의 이름은 龜이요 자는 浪翁으로 경주 이씨이다. 고려의 재상 이세현의 7세손이다. 달관과 귀인이 많아서 大族으로 일컬어졌다. 증조부는 참판 繼蕃이고, 조부는 관찰사 尹仁이요, 아버지는 현령 公麟으로 死六臣 가운데 집현전 학사 박팽년의 사위이다.

공은 名臣의 世交로 탁월하게도 몸을 깨끗이 하고 고상하게 행동하였다. 점필재의 문하에 노닐며 배우기를 즐겨하였다. 성인의 글이 아니면 읽지 아니하여 크게 大節을 지녔다. 秋江 南孝溫은 그를 칭찬하여 “幼少한 임금을 가히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太學에 올랐다.

성종 20년에 급제하여 承文院의 正字를 거쳐 博士 겸 太常에 이르렀으나, 꾸짖어 파면함에 이름난 山水에 자취를 숨겼다. 풍악에 노닐때 摩訶衍의 종이 공을 보고 묻기를 “눈으로 만물을 봄니까? 만물이 눈에 듭니까?” 하여 대답하기를 “눈으로 만물을 보고, 만물 또한 눈에 든다”고 하였다. 그래서 ‘格物物格說’을 지었다.

뒤에 예조의 좌랑으로 서용되었으나 무오사화의 큰 화란이 일매, 점필재의 문인이었기에 그의 党人으로 지목되어 郭山으로 유배되었다. 3년을 지내고 羅州로 옮겨졌다. 갑자사화에 여러 당인에게 죄를 더함에 공도 마땅히 사형당할 것이라 하였다. 집의 종이 죄 없이 죽음을 민망히 여겨 몰래 공에게 이르기를 “죄라 하나 죄 아니며, 임금이라 하나 임금 아니니, 어찌 좋은 방책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李長坤의 예(1504년 교리로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거제도에 유배되었는데, 연산군은 무예와 용맹이 있는 이장꾼이 변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서울에 잡아 올려 처형하려 하자, 이를 눈치채고 함흥으로 달아나 楊水尺의

무리에 섞여 숨어 살았다. 이 해 중종반정으로 자유의 몸이 된 뒤 사가독서하고, 1508년 朴元宗의 추천으로 다시 기용되어 홍문관의 교리, 사헌부의 장령을 거쳐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었다 — 필자주)를 들었다. 그러나 공은 오랫동안 근심하는 빛을 보이다가 “임금의 명은 도망할 수 없느니라” 하였다.

형벌을 당함에도 또한 태연자약하다는 말을 듣고 폐왕(연산군)은 더욱 노여워하여 사형에 처하라 하였다. 또한 服罪하지 않으니 집을 籍沒하게 하여 부자와 형제가 다 연좌되어 타와 별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숨어 나오지 않았다.

중종 원년에 그 당인들을 풀어 주어 다 그 관직을 되돌려 주고, 공에게는 승정원의 도승지를 추증하고, 그 자손들을 채용하게 하였다.

부인 최씨는 증참판 鐵孫의 딸인데 賢夫人의 행실이 있다고 칭찬 받았다. 공이 화를 입은 것이 갑자년 10월 24일인데, 부인은 그 해 8월 17일에 죽어 楊州 東泉溪에 최씨들이 장례하였다.

공이 화를 당함에 부인의 아우 승문원 정자인 命昌이 즉시 관직을 버리고 羅州로 가서 운구해 와서 장사지냈다. ……

공의 별호는 再思堂인데, 文章 또한 한때 기리는 바였으나 크게 전하지는 못해 『東文選』과 『大東詩林』에 수십 편이 실려 있고, <遊金剛錄> 1권이 자손들에 전한다. (『眉叟記言』)

卓犖潔身高行, 그리고 大節을 지닌 자가 단지 점필재의 문도였다는 사실 하나로 점필재의 당인으로 지목되어 郭山으로 유배되었다가 3년을 지내고 다시 羅州로 옮겨져 끝내는 죽음을 당하는 이원의 冤抑함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 연좌된 그의 아우 별은 그러한 형을 교외에서 눈물로 이별하고 황해도 平山으로 자취를 감추어 비탄해 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이별에 대해 魚叔權(생몰의 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16세기의 인물이다)은 『稗官雜記』 권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있다.

진사 이별의 자는 浪仙이다. 연산군 무오사화에 형 원이 점필재의 門弟로 나중에 귀양감에 교외에서 서로 눈물로 이별하였다. 이로부터 다시는 과거시험에 응하지 않았다. 황해도의 평산에 집을 짓고, 그 집의 이름을 藏六堂이라 하였

다. 늘 소를 타고 술을 싣고 향사의 耆老들을 이끌고 뉘시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냥도 하였다.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해가 저물어도 돌아가기를 잊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취하고, 취하면 노래하고, 혹 눈물을 흘리며 울어 슬퍼하였다. 비록 아내나 종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그 까닭을 모르고 이상하게 여겼다. 병들때 유언하여 “땅을 고르지 말고 앞 산기슭에 묻어라”고 시켰다. 일찍이 〈放言詩〉를 지어……라 하였다. 그의 시고 약간 권과 지은 가사 6장이 세상에 전한다.

이별이 世俗을 등지고 평산에 은둔하여 비탄해 함은 그의 형에 말미암은 것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세속에 대한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그의 가족들마저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우선 그는 그의 집을 ‘藏六堂’이라 이름하였다. 이 장육당에 대하여 『平山郡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장육당은 西峯面 玉溪山 아래에 있다. 연산조 진사 이별이 이 곳에 터를 잡아 집을 지었다. 은둔하려는 뜻이 있었다. 자라가 머리와 꼬리 그리고 네 발을 감추는 뜻을 취하여 스스로 ‘藏六’이라 號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마을의 이름이 되었다. (古跡)

이 ‘장육’은 佛家에서 쓰여진 비유의 말이다. 『雜阿含經』에

“거북이 있었는데 野干이란 짐승에게 잡히었다. 머리와 꼬리 그리고 네 발을 껍질 속에 감추고 내놓지 않으니 野干이 성을 내다 가 버렸다.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거북이 머리와 꼬리 그리고 네 발을 감추듯이 스스로 六根(죄를 짓는 근본인 眼·鼻·耳·舌·身·意의 여섯을 뜻한다)을 감추고 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

거북이 머리와 꼬리 그리고 네 발을 껍질 속에 감춤은 목숨을 빼앗길 禍를 야간으로부터 모면함이고, 비구들이 육근을 감춤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죄를 짓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별이 이러한 뜻을



지난 '藏六'을 堂號로 정함은 거북의 장육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겠다. 그는 그만큼 世俗으로부터의 위협을 느꼈던 모양이다. 숨어서 술로 잊으려고 하였으나, 그 위협에의 반감은 술로 하여 폭발하니 그것이 悲嘆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취하면 노래하였던 것이다. 그는 혹 외조부가 불렀다는,

가마귀 눈비 마자 희는듯 검노미라  
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라  
님向魂 一片丹心이야 고칠줄이 이시라.

는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취하면 노래하였던 것이 '六歌'로 불려진 것이 아닐까? 그러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지은 시가 〈放言〉이기도 할 것이다.

왜 이별은 우는 닭을 죽이고자 했을까? 죽이고자 하다가 죽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닭은 대낮에도 울지만, 새벽을 알리기 위해서 운다고 한다.(鷄鳴樂師擊鼓以告旦—列女傳·賢明傳) 이렇게 닭이 울면 순임금과 같은 성인은 일어나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척과 같은 도둑놈은 열심히 탐욕해서 악한 일을 한다.(鷄鳴而起 孳孳爲善者 舜之徒也 鷄鳴而起 孳孳爲利者 跖之徒也—孟子 盡心上) 그러니 닭이 울지 못하게 죽일 수도 없고, 죽이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런데 닭은 언제나 새벽을 알리기 위해서 운다. 비바람이 불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風雨淒淒 鷄鳴啾啾—詩 鄭風 風雨) 그러니 순임금과 같은 무리도 도척과 같은 무리도 다 함께 듣는다.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저마다 애쓴다. 그러니 닭도 울지 않으면 닭이 아니다. 참 묘하다. 이 세상에는 善과 惡이 共存한다. 善은 善대로 가치가 있고 惡은 惡대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 善行은 추장하면서도, 惡을 조장하는 그 根源을 죽여 없앨 수는 없을까? 이러한 생각이 〈放言詩〉의 내용일 것이다.

## 3.

許穆은 『眉叟記言』 별집 권10에 <장육당육가지>를 다음과 같이 썼다.

藏六翁은 再思堂의 아우요, 단종의 死六臣인 집현전 학사 朴彭年의 외손자이다. 연산조의 갑자사화를 당하여 재사당이 화를 입음에 형제들도 그에 연좌되었다. 연산군이 폐위된 뒤에도 세상에서 숨어 나오지 않았다. 藏六堂六歌가 있어 세상에 전한다. 退陶 李先生이 “매우 오만하게도 세상을 버리고 자취를 숨겼다(爲太傲然 遺世放跡)”고 하였는데, 그 말은 진실로 그럴듯하다.(其言固然) 혼탁한 세상을 만나 몸을 깨끗이 하여 멀리 떠나와서 세상의 번루한 일을 잊어 버렸다. 그렇다면 매우 걸출하며 우뚝히 세속에서 벗어나 시원하게도 箕山 潁水에 들어가 산 巢父와 許由의 풍모가 있음을 족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중중반정이 있고 난 뒤에도 이별이 세속에 자취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됨은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중이 등극하고는 冤死者에게는 벼슬을 추증하고, 귀양살이에서 풀려난 자들에게는 복직을 시켜 주었다. 신진사류들에게 등용의 길이 열렸음에도 이별은 宦海속으로 발을 들여 놓지 않았다. 그가 지었다는 <육가>는 이러한 삶의 분위기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魚叔權의 글에서 “술이 취하면 노래하고, 혹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醉而歌 或涕泣以悲)”거나, “비록 아내나 종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그 까닭을 모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함에서 무엇인가 김새를 알아차려야 할 것 같다. 어숙권은 좌의정을 지낸 魚世謙의 庶孫이라 한다. 생몰년이 미상이나 대체로 1530~40년대에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국어에 능통하여 외교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박학하고 문장이 뛰어나 시평과 시론에 일가를 이루어 栗谷 李珥를 가르칠

정도였으나, 미친한 출신이어서 끝내 현달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의 동정을 받아 비록 '稗官雜記'이긴 하나, 이별은 그 속에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장육당육가지〉를 쓴 허목은 대단한 학식과 정견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는 이별의 형 이원의 묘갈명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한 그의 〈육가지〉는 비록 후대에 쓰여지긴 하였으나 믿을 만한 것이다. 퇴계의 비판까지도 수용했다. 퇴계는 평하여 “매우 오만하게도 세상을 버리고 자취를 숨겼다”고 하였다면서, 그 평에 동의하여 “그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其言固然)”고 받아들이고는, 자기의 판단으로, 혼탁한 세상을 만나 몸을 깨끗이 하여 멀리 떠나와 세속의 번루한 일을 잊어버렸다면, “매우 걸출하여 우뚝히 세속에서 벗어나 시원하게도, 기산 영수에 들어가 산 巢父와 許由의 풍모가 있음을 족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亦足以想見 魁梧傑出 高蹈拔俗 冷然有箕穎之風)”고 하였다. 이러한 소부와 허유의 태도가 바로 ‘玩世’하고 ‘不恭’한 것일 터이다.

이러한 분위기와 이별의 意識과 感情이 노래로 結晶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허목은 실제로 〈육가〉를 전해 주지는 않았다. 이별의 從孫子인 李光胤(1564~?)이 漢文으로 譯詩할 때에도 벌써 2수가 없어져 4수만 남았으니, 이 〈육가지〉를 쓸 때는 〈육가〉의 가사는 다 잊혀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퇴계가 〈도산십이곡〉을 짓고 그 발문을 쓸 때(1565)까지는 〈육가〉가 盛傳되었다고 하였다.

퇴계는 〈도산십이곡〉의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情과 性에 어떤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詩로 표현하였다. 그렇게 표현된 시는 읊을 수(可詠)는 있으나 노래부를 수는 없기(不可歌)에, 노래부르고자 하면 情과 性에 느껴진 것(感於情性者)을 반드시 우리의 말로 문장화해야 한다(必綴以俚俗之語)고 했다. 그렇지 않고 漢詩文으로 노래한다 하

더라도 듣는 사람은 지루해서 조은다(倦而思睡—농암의 어부가 발문)고 하였다. 그래서 노래부르기(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말로 歌詞를 짓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래하는 우리의 가곡이란 대체로 그 말이 淫哇하기 때문에 말할 것이 못되었다.(吾東方歌曲 大抵語多淫哇 不足言)

퇴계가 말한 우리말의 노래란 <쌍화집>과 같은 非文人들의 歌詞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文인들이 지은 가사 <한림별곡>을 거론하게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여 군자들이 마땅히 숭상할(귀하게 여길) 바가 못된다(尤非君子所宜尙)고 거부하였다. 이 때 눈에 띈 것이 이별의 <육가>였다. 이별도 文人이기에 그의 <육가>를 한림들의 <한림별곡>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궁호방탕하고 설만희합한 <한림별곡>보다는 <육가>가 더 낫다고(猶爲彼善於此)고 판단하였다. 판단의 기준으로는 내용과 형식이 다 고려되었을 것이다. <육가>가 이런 기준으로 보면 더 낫기는 하지만, 아깝게도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內實이 적다는 欠缺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한림별곡>류가 아닌 <육가>를 略倣하여 <陶山六曲> 두 편을 지었다. 이것이 <陶山十二曲>이다. 이렇게 지어 놓고도, 이것이 '鬧端'을 일으킬지 모른다(或因惹起鬧端未可知也)고 걱정하였다.

그는 노래의 말을 만들면서도 詩敎의 理想인 '溫柔敦厚'를 실현하려 하였다. 이 '온유돈후'라는 시교는 이미 漢代의 『禮』에서 표방되어, 『禮』의 經解에서 "溫柔敦厚 詩敎也"라 못박고, 注疏하여 "溫 爲顏色溫潤 柔 爲情性和柔, 詩依違諷諫 不指切事情 故云溫柔敦厚是詩敎也"라고 해명하였다. '溫'이 외면적인 따스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柔'는 내면적인 情과 性의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외면적인 따스함과 내면적인 부드러움을 지닌다면 人間關係나 事物關係에 흐르는 느낌이 疎遠함이 아니라 敦厚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느낌을 詩化했을 때 그것은

諷諫이 될 수 없고, 또 事情을 매몰차게 指摘하여 論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溫柔敦厚'를 詩教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맨 먼저,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다흐료  
草野愚生생이 이러타 엇다흐료  
흐물며 泉石膏肓을 고타 므슴흐료.

라고 하였다.

言志의 제1장이다. 얼굴에는 따뜻함(溫潤)이, 속에는 부드러움(和柔)이 있음을 알겠다. 分別함이 없이 받아들이니 그러하다. 갈등함이 없다. 守分함에서다. 거기에다 지닌 것이 泉石膏肓이니 草野가 제격이겠다. 그러니 늘 肯定的이다.

淳風이 죽다흐니 眞實로 거즈마리  
人性이 어디다흐니 眞實로 울흐마리  
天下에 許多 英才를 소겨 말스홀가.

남들 같으면 諷하고 刺했을 世俗과 人性에 대해서, 드러난 부정적 外面만 보지 않고, 그들의 밑바탕에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맑음과 어짙을 드러내어 그것을 실현하도록 노래했다. 그러므로 그는 四時의 佳興을 함께 느끼는 滿足과 自由의 境地에 들게 되는 것이다.

그는 言學의 제1장에서 風流를 말하고, 그 제2장에서,

雷霆이 破山하야도 聾者는 못듣느니  
白日이 中天하야도 瞽者는 못보느니  
우리는 耳目聰明男子로 聾瞽곤디 마로리.

라고 하여 총명한 耳目을 가져 그 총명한 귀와 눈으로 듣고 보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格物 致知하여 通知할 때 玩世하여 不恭하지 않을 것이다. '耳順'하면 不平不滿하지 않을 것이다. 퇴계가 추구하고 누리려는 것이 그래서 '萬古常青'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장유당의 <육가>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래부르기 위한 音節의 形態로는 <翰林別曲>보다 더 낮고, 말에 淫哇함도 없으니, 그래도 文人인 이별 <육가>의 틀을 본뜬 것이겠다. 그러나 그 틀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어 퇴계의 <陶山六曲>으로 짐작할 뿐이다. 2수를 잃은 채 李光胤이 번역한 것만이 그의 문집 『瀼西集』에 아래와 같이 실려 있다.

4.

- |          |       |
|----------|-------|
| 1. 我已忘白鷗 | 白鷗亦忘我 |
| 二者皆相忘    | 不知誰某也 |
| 何時遇海翁    | 分辨斯二者 |
| 2. 赤葉滿山椒 | 空江零落時 |
| 細雨漁磯邊    | 一竿真味滋 |
| 世間求利輩    | 何必要相知 |
| 3. 吾耳若喧亂 | 爾瓢當棄擲 |
| 爾耳所洗泉    | 不宜飲吾饋 |
| 功名作弊屨    | 脫出遊自適 |
| 4. 玉溪山下水 | 成潭是貯月 |
| 清斯濯我纓    | 濁斯濯我足 |
| 如何世上子    | 不知有清濁 |

1. 내 이미 백구 잊으니 백구도 날 잊었도다.  
둘이 서로 잊었으니 아무인 줄 모를로다.  
어느제 해옹 만나 이 둘을 분변할거나.
2. 산마루에 단풍들고 비인 강 영락한 제  
비 내리는 낚시터에 고기 낚는 이 재미.  
세상의 求利輩들이야 친구해서 무엇 하리.
3. 내 귀 시끄러울선정 내 표주박 웅당 버릴것을.  
네 귀 씻은 물 내 송아지 먹이지 않으리라.  
功名은 헛식작이니 벗어나 마음대로 놀리라.
4. 玉溪山 맑은 물 못 이루어 달 띄우네.  
맑으면 갓끈 씻고 흐리거든 발 씻으리.  
어찌타 세상사람 淸濁 있는 줄 모르는고.

애써 반역해 보아도 자연스럽지가 않다. 퇴계가 <도산십이곡>의 발문을 쓸 때(1565년)만 하여도 ‘世所盛傳’이라 하였는데, 후대의 歌詞集들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혹시 퇴계가 말한 ‘其有玩世不恭之意而少溫柔敦厚之實’이 발미가 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육당본 『청구영언』에 14수의 작품이 실렸으나 그 생몰년대마저 불확실한 申喜文(字 明裕)은

술을 너 아더냐 狂藥인 줄 알것마는  
薑 잡아 우음나니 一杯一杯 復一杯라.  
劉伶이 이러힘으로 長醉不醒 흐노라.

고 노래하였다. 술이 助興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忘憂·解愁의 妙藥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薑 잡아 우음 나니 一杯一杯 復一杯라”고 하였다. 그는 또

岩花의 春晚호의 松崖에 夕陽이라.  
平蕪의 너거드니 遠山이 如畫로다.  
瀟灑호 水邊亭子の 待月吟風 호리라.

고 읊기도 하였는데, 읽으매 귀에 익어 찾아보았더니, 율곡의 <고산구곡가> 가운데,

二曲은 어디미오 花岩에 春晚거다.

四曲은 어디미오 松岩에 晦暈거다.

一曲은 어디미오 冠岩에 晦비친다.  
平蕪에 너거드니 遠山이 그림이로다.

五曲은 어디미오 隱屏이 보기도타  
水邊精舍은 瀟灑호도 2이업다.  
이중에 講學도 호려니와 咏月吟風 호리라.

에서 그 出典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는 율곡의 노래 <고산구곡가>에 익숙했던 것 같다. 그러한 신희문이 유령을 빙자하여 술로써 시름을 잊고자 노래하였다. 그 시름은 어디서 오는가? 뜬 구름 같은 부귀공명을 탐함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塵世를 다떨치고 竹杖을 훑져잡고  
琵琶를 두러메고 西湖로 드러가니  
水中에 썩잇는 白鷗는 너벗진가 호노라.

고 노래하여 시름에서 놓여날 수 있었다. 영의정을 지낸 申叔舟의 손자 申光漢(1484~1555)도,



心如長江流水清이오 身似浮雲無是非라  
이몸이 閑暇하여 쓰로느니 白鷗이로다.  
어즈버 世上名利說이 귀에올가 호노라.

고 노래하여, 세상의 名利를 피해 한가히 백구와 함께한다고 하였으며,  
좌·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던 申欽(1566~1628)마저도

是非업슨 後라 榮辱이 다 不關타  
琴書를 хот든 後에 이몸이 閑暇하다.  
白鷗야 機事을 이즘은 너와 내가 호노라.

고 읊어 機事를 잊고 지내고자 하였다. 세상의 名利와 機事는 七顛八起의 변화를 일으킨다. 顛과 起의 반복이 특히나 宦海의 現象이다. 苦와 甘은 어서겨 일어난다. 여기서 벗어나면 解愁요 自適이다. 이를 누려 隱逸이라 한 것 같고, 그러나 懷寶迷邦(懷藏道德 不救國之迷亂)을 공자는 “不可謂仁”이라 하였다. 여기에 갈등이 있어 隱과 現을 반복한 것 같다.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이몸이 되올진디 무엇이 될고 하니  
崑崙山 上上峯에 落落長松 되앗다가  
群山에 雪滿호거든 혼즈우뚝 호리라.

고 石洲 權輶(1569~1612)은 노래하였으나, 이것은 成三問의

이몸이 주거가서 무어시 될꼬 하니  
蓬萊山 第一峰에 落落長松 되야이셔  
白雪이 滿乾坤홀제 獨也靑靑 호리라.

와 同曲이다. 그러나 “혼자 우뚝하”거나 “獨也靑靑함”은 너무나 두드러

저 “群山에 가득한 눈”이나 “乾坤에 가득한 白雪”에 너무나 대조·대립하여 갈등하고 위협받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갈등과 위협(塵世)에서 벗어나고자 江湖로 들어 白鷗와 벗하고자 하였다. 俞崇(1661~1734) 같은 이도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清溪邊 白沙上에 혼조선눈 저白鷗야  
 나의먹은 뜻을 넌들아니 아라시라  
 風塵을 슬희여 흠이야 네오니오 다르라

이미 避世하여 백구와 벗하였으니 여기에 溫柔와 敦厚함이 있을 수 없다. 詩로써 가르침(詩教)을 표방한 것이 ‘은유돈후’라면, 가르칠 자리가 아닌 데서야 오히려 배우고자 함이 자기의 자신인 바에야 그 노래는 詩教가 아니다. 소리에 뜻이 담김에 그것은 玩世요, 그 태도는 不恭하다 아니할 수가 없다. 그것마저도 잊고자 함에 술의 힘을 빌게 될 것이다.

술의 힘을 빌렸건, 그렇지 아니하건 간에 장육당은 황해도 의 평산에 들어 백구와 벗하자고 간청하지 않았다. 백구가 백구인 것을 잊었다고 하였다. 벗하고 있는 相對를 잊음은 백구 또한 마찬가지로, 둘이 서로 잊었으니 너와 나를 分辨하지 못하는 하나가 되었다. 내가 백구인지, 백구가 나인지 분간하지 못한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함께하거나 벗하는 정도가 아닌, 相合이요 一體이다. 그래서 오히려 “어느제 海翁(이 해옹은 굴원의 <어부사> 가운데의 어부일 수 있다)을 만나 이 둘을 분변할 거나”라고, 나와 백구를 분변하기를 소망한다. 백구의 세계는 人間이 아니다. 그 非人間의 세계에서 자기마저 잊고 있다고 노래하였다. “내 이미 백구 잊으니”는 곧 나를 잊음(忘我)을 말한 것이다. 나와 백구가 분변할 수 없는 하나이니, “白鷗亦忘我”함은 내가 나를 잊었다는 뜻이다. 내가 나를 잊음은 남에게도 잊혀지게 됨을 뜻한다. 金光燧(1580~1656)은 <栗里遺曲>에서

功名도 니것노라 富貴도 니것노라  
 世上 번우훈일 다주어 니것노라.  
 내뎡을 내미자 니즈니 늑이아니 니즈랴.

고 노래하였는데, 이러한 잇음은 번우한 일, 곧 功名과 富貴를 잇음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잇음은 다른 재미로 채워지게 된다. 산마루(山椒)에 단풍들어 붉고(잇은 곧 떨어질 것이다) 비인 강가(空江)에 풀은 이울고 나뭇잎은 떨어지(零落)더라도, 가는 비 내리는 낚시터에서 고기 낚는 재미야 있지 않은가. 산마루에 가득한 붉은 잇은 한 해를 마감함을 뜻하고, 텅 빈 강가의 마른 풀과 잎 떨어진 나무들은 늑어감을 상징한다. 그래서 [楚辭·離騷]에서는 “惟草木之零落兮 恐美人之遲暮”라 읊었다. 草木이 零落하면 蟄蟲도 蓋藏한다. 쓸쓸하다. 그러나 가는 비 내리는 낚시터에 낚대 하나 드리우고 있다. 그것에서 재미를 느낀다. 이것이면 足하다. 이러한 재미 잇음에야 세상에서 이익만 추구하는 무리들이야 하필이면 친구할 것이 있겠는가? [楚辭·離騷]에서는 또 “已矣哉 國無人兮 莫我知兮 又何懷乎故都”라고 읊었다. 어차피 떠나온 바에야 故都를 생각할 것도 없고, 거기에 가 보아야 나를 알아줄 사람도 없다. 사람이야 없을 가마는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굴원은 <어부사>에서 어부의 입을 빌어 스스로를 비판한다. “聖人이면 사물에 집착하지(凝滯) 않아 능히 세상과 더불어 그 변화(推移)를 함께할 것이거늘……어찌하여 깊이 생각하고 俗世間을 벗어나 스스로 추방당하게 하였는가?” 그래도 장육당은 타락한 세속의 무리들과는 함께할 수 없었다. 그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리 속에 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淸과 濁은 分離해야 한다. 흐린 涇水와 맑은 渭水가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濁과 淸은 구별이 더욱 분명해진다.

장육당은 이미 塵寰의 紅塵을 벗어나 平山에 숨어 들었다. 許由가 箕

山の 穎水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니 그 불편함을 딱하게 여겨 누군가가 표주박 하나를 주었다. 편리하게 물을 떠서 마시고 난 뒤에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었다. 바람이 부니 매달린 표주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그래서 그 표주박을 버렸다. 편리한 표주박이나 바람 받아 내는 표주박의 소리가 시끄러워 그것마저 버렸다. 이로운 것보다 시끄러움이 더 싫었던 것이다. 장육당도 시끄러울 바에야 利益됨도 버렸다. 그는 巢父 許由의 삶을 본받고자 한 것 같다.

堯가 許由에게 나라를 맡기고자 하나 허유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다시 九州의 長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마다 하고 그 말을 들은 귀를 穎水에서 씻었다고 한다. 그 귀 씻은 더러운 물을 송아지에게 먹일 수 없다고 하여 송아지를 위로 끌고 가서 물을 먹였다는 자가 巢父이다. 소부에 대해 『高士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소부는 요임금 때의 은자로, 산속에 살면서 세속의 이득을 도모하지 않았다. 늘그막에 나무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서 잤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巢父'라고 불렀다. 요임금이 허유에게 양위하려 하자 허유는 소부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이에 소부는 "그대는 어찌하여 그대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의 빛남을 감추지 않는가? 그대는 내 친구가 아닐세"라고 하면서, 허유의 가슴을 밀치며 그를 내려보냈다. 허유는 실의에 빠져 시무룩하였다. 이에 소부는 淸冷의 강으로 가서 자신의 귀를 씻고 눈을 닦으며 "방금 전 탐욕스런 말을 들은 내 친구를 버리게 되었구나!" 하고는 마침내 떠나가서 평생 서로 만나지 않았다.

소부가 은거함은 세속의 이득을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싫어했다. 장육당 역시 세상의 煩紆한 일, 富貴와 功名을 마다한 것이다. 그 功名이란 軒轅(弊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塵寰을 脫出하여 自適히 노닐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것이 낚시질이요 사냥이며 노래하는 일이었다. 後漢의 高鳳은 潛心篤行하여 屢

辟에도 不應하고 漁釣로 自適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名儒가 되었다.

이리하여 장육당이 塵寰을 피하여 든 황해도 평산군 서봉면에는 玉溪山이 있다. 『대동여지도』를 보면 평산군의 主山이라 할 수 있는 滅惡山(816m)이 동쪽으로 흘러 西峯山을 조금 지나 멧힌 곳에 玉溪山이 있고, 그 산자락에 藏六堂리가 있다. 이 이름은 장육당이 여기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옥계산에서 흘러 내린 물이 모여 못을 이루었던 모양이다. 산의 이름이 玉溪임은 그山谷에 흘러 내리는 물이 맑고 아름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賈島는 <蓮峰歌>에서 “欲把瑤琴過玉溪 朗然清夜月明時”라 읊었다.

이 옥계산에서 흘러 내린 맑은 물에 달이 떠 있다. 달빛이 환하다. 여기에서 촉발되어 굴원의 <어부사>가 흥얼거려졌을 것이다. ‘與世推移’하면 될 것을 스스로 결백함을 주장함에 어부는 빙긋이 웃고 배를 저어가면서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이라 노래하였다. 이 노래는 『孟子』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離婁章>에서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不仁者 可與言哉? 安其危而利其菑 樂其所以亡者. 不仁而可與言則 何亡國敗家之有. 有孺子歌曰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孔子曰 ‘小子聽之. 清斯濯纓 濁斯濯足矣 自取之也’ 夫人必自侮然後 人侮之. 家必自毀而後 人毀之. 國必自伐而後 人伐之. 太甲曰 ‘天作孽 猶可違 自作孽 不可活’ 此之謂也.”

여기서 맹자는 “어질지 못한(不仁) 자와 더불어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그 어질지 못한 자는 위태함을 편하게, 재앙을 이로움으로 여기고, 망하게 될 것을 즐기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申飭해 보아도 그들이 듣지 않음을 전제하여, “어질지 못한 자와 더불어 말할 수 있다면 어이하야 亡國과 敗家が 있겠느냐?”고 또 반문하였

다. 맹자는 그의 전제를 타당화하기 위해 孺子の 노래를 인용하였다. 이 노래는 굴원의 〈어부사〉에서 어부가 부른 노래와 같다. 공자도 이 노래를 제자들에게 언급하였음을 말했다. 공자는 “자네들 듣게. (물이) 맑으면 갓끈 씻고, 흐리면 발을 씻는다고 하니, (갓끈을 씻거나 발을 씻음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는 자기의 생각을 일반화하여 “대저 사람이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연후에 남이 그를 업신여기고, 가정이란 반드시 스스로 헐고 난 뒤에 남이 그 가정을 허물고, 나라란 반드시 스스로 친 뒤에 남이 친다”고 하였다. 이 말의 초점은 ‘必自’에 있다. 모든 행위와 그 결과는 ‘반드시 스스로’에서 초래됨을 강조한 것이다. 이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書經』 太甲篇의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경구가 이를 증명해 준다(此之謂也)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옥계산의 맑은 물이 흘러 모인 못에 달이 비치고 있는 것에 촉발되어 장육당은 왜 공자가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어부사〉에서 굴원(어부가 노래불렀다고 하였으나, 이 어부는 굴원 자신이다)이 노래부른 “淸斯濯纓 濁斯濯足”,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을 끌어 와서 스스로와 관계지워(我纓·我足) 노래했던가? 옥계산 아래 물이 못을 이루고, 그 물에서 달을 찾았다면(貯月) 그 물은 맑았을 것이다. 물이 맑기에 그는 갓끈을 씻을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이하여 세상사람들은 淸과 濁이 있음을 모르는고?” 하고 한탄한 것 같다. 그렇다면 세상사람들이 그 “있음”을 모르는 ‘淸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서 인용한 공자의 말에 주석하여 “淸濁所用 尊卑若此 自取之 喻人善惡見尊賤乃如此”라고 하였으니, 淸과 濁을 분리하여 淸은 “善과 尊”, 濁은 “惡과 卑”로 범주화한 것이다. 그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취

함은 스스로에게 달렸다. 그래서 白居易는 〈題噴玉泉詩〉에서 “何時此岩下 來作濯纓翁”이라 읊었으나, 장육당은 이미 ‘濯纓翁’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흐린 물에는 발을 담그지 않았다.

이러므로 장육당은 淸과 濁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의 분별을 하지 못하는 세상사람들을 玩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그는 塵寰에서 超然한 것이다. 泉石膏肓으로 太平聖代에 四時佳興을 한가지로 하는 퇴계와는 그래서 다르다. 퇴계는 淳風과 어진 人性을 긍정하였기에 滿足하고, ‘古人之 녀던 길’을 不斷히 行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玩世不恭’과 ‘溫柔敦厚’가 判別되어진다.

장육당이 ‘玩世不恭’했다면, 그것은 自取한 것이요, 퇴계의 ‘溫柔敦厚’함도 스스로 취한 태도이다. 이 自取함에 是非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장육당이 너무 우뚝하기에 퇴계는 “爲太傲然 遺世放跡”이라 비판하였다.

## 〈참고문헌〉

### 1. 李公麟의 墓碣銘

公諱公麟 字某 慶州著姓 六世祖齊賢 號益齋 貴顯 高麗朝官侍中 文章德業高一代 自後貂蟬相繼 爲世名家 至觀察使尹仁 娶萬戶洪仲良女 生公 洪亦世族 君性淳慤 抱美質 有遠大氣 少連坐婦翁朴彭年罪 錮廢 不得仕幾年 歲某甲始筮名武班職 復薦爲通禮院引儀兼漢城府參軍 出宰咸悅昌平 皆有善政 吏畏民懷 有八男龜龜龜龜龜 龜龜 皆才子也 龜龜進士 與龜龜皆中文科 龜爲佐郎 龜官沔川郡守 龜爲禮曹佐郎 龜龜皆中司馬試 龜龜亦學成 龜龜戊午獄獄外 甲子虐政 追加其罪 置之死 非其辜 并坐 父及兄弟配諸遠外 公以是 罷昌平 謫海南三年 遇聖主登極 哀冤死者 贈之官 放還流人 復其爵 公以累經禍患 年且老 不欲官于朝 退閑淸州舍 至某甲病逝 享年幾 是年某月日葬于某地 諸子相與謀豎碣 表其年德丞派 昭諸後 屬用澗爲銘 用澗與龜龜氏 心相許約爲兄弟 親拜公堂下 最信且久 銘以記實 所不敢辭 銘曰

奮於己而豐於後 有慶蘭玉之藪  
門之大歿而不亡宅 于斯永保吉康

(申用漑)

## 2. 李龜에 대한 言及

李龜 字浪翁 慶州人 號再思堂 益齋之後 朴彭年之外孫 己酉登第 官佐郎 戊午杖流羅州 甲子被禍 中廟初贈都承旨 兄弟八人 人比之荀氏之八龍 而曰公慈明 父李公麟娶朴彭年女 合卺之日 夢有老翁八人拜請曰 某等將就死 若活湯鑊命則 有以厚報 鱗驚起問之 餐人將以八鼈調羹 卽令放于江流 一鼈逸去 小奚持鏃而捕之 誤斷其項死焉 其夜又夢七人來謝 其後生八子 名龜鼈鼈鼈鼈鯉龍 志其瑞也 皆有才名 浪翁文章行義 爲世所推 死於甲子 其驗如此 至今李氏不食鼈云

公弟鼈 與公泣別于郊 自是不赴舉 常騎牛載酒 携鄉社耆老 或釣或獵 每飲酒涕泣而悲 嘗作詩曰

我欲殺鳴鷄	恐有舜之聖
雖欲不殺之	亦有跖之橫
風雨鳴不已	舜跖同一聽
善惡各孜孜	不鳴非鷄性

(鄭希良『虛庵遺集』속집 권3)

## 3. 李龜의 墓碣銘

公諱龜 字浪翁 姓李氏 本雞林人 高麗相齊賢七世孫也 世有達官貴人 號大族 大王父參判繼蕃 王父觀察使尹仁 父縣令公麟 魯陵六臣故集賢殿學士朴彭年之婿也 連六臣事 不顯用於世也 公以名臣之世好 卓犖潔身高行 少遊佔畢齋之門 亦嗜學 非聖人之書不讀 偉然有大節 秋江處士南孝溫稱之曰 可以託六尺之孤子也 早年陞上庠 成宗二十年 及第 由承文正字 至博士兼太常 以諱罷 放跡名山水 遊楓嶽 有摩阿僧見公問之曰 目覩萬物乎 萬物入目乎 公曰 目覩萬物 萬物亦入目 作格物物格說 後叙爲禮曹佐郎 及戊午大禍起 公佔畢齋門人 目爲黨人 流郭山三年 量移羅州 甲子加罪 諸黨人 公當論死 有僕隸問其無罪死 私謂公曰 罪非罪 君非君 盍亦善爲之 亦引李長坤事言之 公愀然久之曰 君命不可亡也 臨刑 亦自若 廢王聞之 愈怒以爲死 且不服命沒其家 父子兄弟皆連坐 鼈鼈逃世不出也 中宗元年大釋黨人 皆復其官 追爵承政院



都承旨 令錄用其子孫. 夫人崔氏贈參判鐵孫之女 稱賢夫人之行. 公被禍當甲子十月二十四日. 夫人其八月十七日歿 合葬楊州治東泉溪 崔氏族葬. 當禍 夫人弟承文院正字命昌卽去官至羅州 以喪返而葬. …… 公別號曰 再思堂 爲文章亦一時所推許 今其文不大傳 東文選 大東詩林 有詩賦累十篇. 遊金剛錄一卷傳於子孫.

(許穆 『眉叟記言』)

#### 4. 李鼈에 대한 言及

進士李鼈 字浪仙. 燕山戊午 母兄菴. 以佔畢齋門弟 竄于羅州 相與泣別于郊. 自是不赴舉. 家于黃海之平山 名其所居堂曰 藏六. 常騎牛載酒 携鄉社耆老 或釣或獵 哦詩酌酒 日暮忘返. 每飲而醉 醉而歌 或涕泣以悲. 雖妻妾僕隸亦怪其所以. 病革遺命 不擇地 葬於前麓. 嘗作放言詩曰……其詩藁若干卷及所製歌詞六章行于世.

(魚叔權 『稗官雜記』 권2)

#### 5. 藏六堂

藏六堂 在西峯面玉溪山下. 燕山朝進士李鼈卜築於此 志在隱遁. 取諸鼈藏六之意 自號藏六 因成村名

(『平山郡志』 권1 物産古跡)

#### 6. 藏六堂六歌識

藏六翁 再思堂之弟而 魯陵六臣集賢殿學士朴彭年之外孫也. 當燕山甲子士禍 再思堂既被禍而 兄弟連坐. 燕山廢後 因逃世不出. 有藏六堂六歌傳於世. 退陶李先生 以爲太傲然 遺世放跡. 其言固然. 遭濁世 潔身遠引 忘世累則有之 亦足以想見 魁梧傑出 高蹈拔俗 冷然有箕穎之風

(許穆 『眉叟記言』 별집 권10)

〈Abstract〉

*JANG-YOOK-DANG's* 〈*Yook-ga*〉 and Irreverence by casting  
upon the world

Yoon Yoeng-Ok

*JANG-YOOK-DANG*(장육당) is the pen-name of *Lee, Byeol*(이별). His elder brother is *Lee, won*(이원). He was putted to death by the king *Yeon-san*(연산군). So abandoning the way of the world, *JANG-YOOK-DANG* hid himself at mountain valley in *Peong-san* of *Hwang-haedo*(황해도 평산). Here he angled for fish and with the persons over sixty years old drunk, sang the songs. Then he composed the poem 〈*Yook-ga*〉.

This poem spreaded abroad, and came to the ears of *Lee, Hwang*(이황). He criticized this poem to have irreverence by casting upon the world, not to have gentleness and affability. But imitating the poem 〈*Yook-ga*〉 he composed 〈*DOSAN* twelve poems(도산십이곡)〉 intended to be sung. For that gentleness and affability are the instruction of the poetry, he filled the poems with contents of the gentleness and the affability.

But the livings of the two persons were different, and then their poems was intended to be sung were different. In these different contents, we can not say that this or that is right. *JANG-YOOK-DANG* would do to express his bitter sentiments by his song.

*Keywords* : Irreverence by casting upon the world(완세불공),  
Gentleness and affability(온유돈후), *Lee Byeol*(이별), *JANG-YOOK-*  
*DANG's* <*Yook-ga*>(장육당의 육가), *Lee Hwang's* <*DOSAN* twelve  
poems>(이황의 도산십이곡)

논문투고일 : 2006년 6월 1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6년 7월 18일